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에코 활동」

- 1 지자체명 일본 도야마현
- 2 발의자명 도야마시립 호쿠부(北部)중학교
- 3 활동명 부모 자원 회수(부모님과 하는 폐품 수집)
- 4 활동기간 2005년 7월 18일 (월) 「바다의 날」
- 5 활동장소 교구 (통학 구역)
- 6 활동참가인원 약 1,000명 (학생 570명, 보호자 약 400명, 교사 30명)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호쿠부중학교 (전교생 604명)에서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교내 클린 작전」 (매주), 「지역 클린 대작전」 (매년 1회), 고시 양호 학교와의 교류 (매년 5회) 등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져, 참가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반년전, 학생회와 육우회 (育友會-보호자회)가 협력해서 지역 어른들과 학생들과의 교류, 부모, 아이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보자고 생각하여「가족 자원회수」를 기획했습니다.

8 발표 요지

(1)본교 학생의 환경에 대한 의식 조사

2001년 호쿠부중학교의 한 오히로타지역에 「도야마시 에코 타운」이라는 플라스틱, 빈캔 등의 재활용 공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 시청, 기업, 학교가 협력해서 지역 모두가 「친환경적인 고향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지난해부터 초,중학생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코 활동에 대해 자신이 하고 있는지 질문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물을 더럽히지 않는 궁리」중에 「양치질, 세안, 샴푸,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은 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는 약 반 정도의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은 채로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틀고 있어 절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용후, 흘러가는 샴푸, 음용하고 남은 물은 강이나 바다를 더럽히게 됩니다. 더럽혀진 바다나 강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 속의 에너지」중에 「TV를 장시간 보거나, TV 게임을 장시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서는 TV를 틀어놓은 채 있거나, 또는 게임에 몰중하거나,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생활과 쓰레기」의 「캔, 병, 펫트병, 우유팩은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귀찮아서인지 자신이 하지 않고 거의 부모님에게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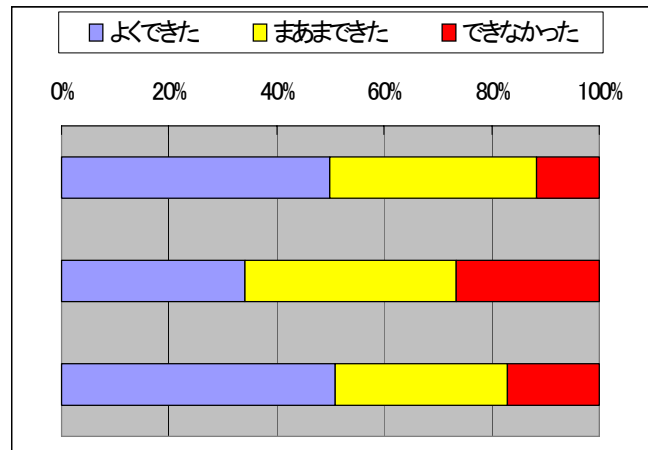
어떻게 해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일단 생겨난 쓰레기는 확실히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치질, 세안, 샴푸,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고 하지 않습니까?」

「TV와 TV 게임을 장시간 하지 않습니까?」

「캔, 병, 패트병,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2) 부모 자원 회수

① 「가족 미팅」 (2월, 5월, 6월)

학생회 집행부 (학생 대표)와 육우회 집행부 (보호자 대표)가 모여서 「부모 자원 회수」의 목적과 회수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② 클린작전 (매주 금요일)

지난해에는 25회 실시되어 약 2800명이 참가했으나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15회 실시하여 약 1800명이 참가했습니다.

③ 클린 대작전 (6월 14일)

각 학우구(学友區)에서 쓰레기가 많이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쓰레기 수거 장소와 처리 방법에 대해 정(町)내 회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④ 안내 전단지과 포스터 (7월 4일)

교구를 4개로 나눠서 자원 회수 시간과 수거 장소를 알리고 각 학우구에서 1인 평균 10~20채에 전단지를 배부해 폐품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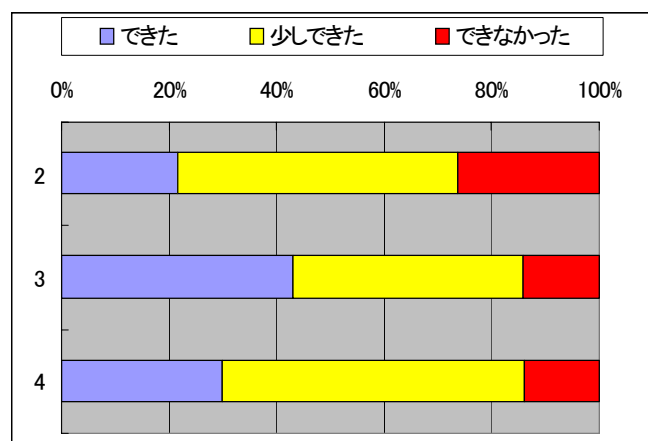
⑤ 가족 자원 회수 (7월 18일 「바다의 날」)

신문 32톤, 잡지 18톤, 골판지 5톤, 합계 55톤의 자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가족 사이의 정이 깊어졌습니까?」

「지역 어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환경 빙고

모두 지구를 소중히 하고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에 ○표를 합시다.

양치질, 세수할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지 말 것	샴푸, 몸을 씻을 때 계속 물을 틀어 놓지 말 것	우유, 주스, 된장국 등을 남기지 말 것	비누,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 말 것
필요한 방만 전기를 켤 것	장시간 텔레비전을 보지 말 것 텔레비전 게임을 장시간 하지 말 것	목욕할 때 욕조에 필요한 물을 아낀다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에어컨 온도는 28도로 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한다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집안팎에 서도)	연필, 지우개, 공책은 마지막까지 사용한다
캔, 병, 패트병,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 재활용한다	쓰레기는 정한 날 아침에 수거장소에 낸다	폐품수집을 도와준다 (학교 등 재활용센터로 가져간다)	밥은 남기지 말고 전부 먹는다